

# 민족정서 측면에서 본 동해

미수연구회 회장 양 태진

## 차 례

1. 머 리 말
2. 한국문학속의 東海觀
  - 가. 口碑文學속의 동해
  - 나. 民謠와 동해
  - 다. 詩歌文學속의 동해
    - o. 時調 o. 歌詞 o. 漢詩
3. 史料속의 東海
  - 가. 東海관련 史料
  - 나. 東海廟 관련 記錄
4. 語義로 본 東海
  - 가. [東]자 풀이
  - 나. 삶 속에 용해되어 온 [東]字
5. 맺 는 말

### 1. 머 리 말

하나의 地名이 生成 存續해 오는데는 多元的인 要因이 함축(含蓄), 응고(凝固)되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인류의 시공간적 활동과 발전단계를 통해 생성된 고유성과 생성된 지명 자체의 특성 및 情感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 대한민국 국립지리원편, 지도와 지명, 국리리원 지도과, 1981, PP.11~12.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동해의 명칭 역시 이러한 견지에서 민족적 정서감을 바탕

으로 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다시말해 동해라는 명칭이 우리 민족의 정서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사와 함께 내면화 되어 왔는가를 설화.민요.신앙.가사문학.역사 등등 제분야를 통해 조명해 봄으로서 동해명칭의 존속 또는 개정에 따른 논의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고 작성의 목적이다.

## 2. 한국문학속의 동해

### 가. 구비문학속의 동해

기록문학과 대칭되는 구비문학은 일명 구전문학이라고도 하는데 구비와 구전은 대체로 같은 뜻이나 이를 굳이 구별하자면 구전은 말로 전함을 뜻하는데 그치나 口碑는 대대로 전하여 내려오는 말을 의미한다.) 한국구비문학회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P.1.

口碑되는 것에는 설화 민요 巫歌.판소리.민속극.속담.수수께끼 등 그 대상 범위는 실로 광범위하다.

이렇듯 폭 넓게 구전되어 오는 구비문학은 기록문학보다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문학으로 그 역사성이 매우 유구하다. 이처럼 유구한 역사성을 지닌 구비문학 가운데 동해관련 구비문학 803편이 지난 1980년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굴 수집하여 [구비문학대계] 총서 속에 수록되어 있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구비문학대계, 동원간, 1983

이후 관동대학 관동민속학회에서 130여 편의 설화를 수집,학계에 제공함으로써) 두창구, 강원도 동해안 지역 說話攷, 관동민속학 10~11합집, 1995, P46.

930여 편의 동해 관련 설화가 전해져 옴이 확인되었다. 여기에다 북한지역 동해안 관련 설화가 추가된다면 그 수는 상당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비문학은 그 수나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어느 만큼 민족 심성에 자리잡고 있고 설화로서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가 라는 설화의 본질성이 중요하다고 할 때 동해 관련 설화는 조선조 태조 이성계 등 최상계층과 관련된 것을 비롯하여 최하층인 기층민의 애환, 바다에 대한 외경심, 신비성 등등 폭 넓게 어우러져 내려옴으로써 구비문학(설화)으로서의 생명력을 지속시켜 오고 있다.) 위와 같은 책, PP. 62~95.

## 나. 民謠와 동해

민요는 노래화 된 구비전승이다. 민요는 노래이기에 음악이면서 문학적이고 그 가사는 율문으로 되어 있어 노래가 아닌 것은 민요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비전승이 아닌 것 역시 민요가 될 수 없다.) 이동철. 강원도 동해안 지역 민요고, 관동민속학, 10~11합집, 1995, PP.28~40.

다시 말해 민요는 비전문적인 민중의 노래로서 민요는 곧 바로 민중들의 생활. 사상. 감정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나타내는 가창(歌唱)인 것이다. 민요는 민중이 널리 부를 뿐만 아니라 음악적 문학적 성격도 어디까지나 민중적이다.

민요는 생활상의 필요성에서 唱者가 스스로 즐기는 노래다. 민요에는 남요(男謠), 부요(婦謠), 동요(童謠)로 구분되어지기도 한다.

민요가 설화와 달리 남녀, 어린이 민요로 구분이 지어져 있는 이유는 스스로 부르며 즐기는 것으로 듣는자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으며 듣는이에 따른 별다른 격식이 없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아이들이면 아이들 그리고 때로는 이들 모두 아무런 격식 없이 어우러져 동질적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민요는 그 어떤 다른 구비문학보다 기능적이다. 노래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노동을 하거나, 의식을 거행하거나, 놀이를 하면서 부른다. 이러한 민요는 노동이나 오락 등의 생활적 기능과 결부되어 독특한 애조와 진솔함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음율은 4.4조로, 선후창, 교환창, 독창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부르는 제창(齊唱)으로 불려진다.) 주 2)와 같은 책, PP. 75~76.

동해관련 민요가락으로 "동해 뱃소리"가 있는데 이 뱃소리는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산대소리>, <베끼소리> 등 크게 네가지로 칭명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다. 첫번째의 <지어소리>는 동해바다를 향해 배의 노를 저어 나갈때와 동해바다로 부터 고기잡이를 마치고 귀항길에 올라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동요의 일종이다. 가창력과 기억력이 좋은 어부 중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나머지는 함께 후렴을 부르며 흥을 돋게 하는 소리이다.

<다리어소리>는 그물을 당길때 부르는 것으로 힘센 어부가 선창하면 나머지 어부들이 후렴구를 합창하면서 그물을 당기는데 따라 힘을 함께 뭉아 그물을 잡아당기는

노래이다.

<산대소리>는 대(竹)나 쇠로 만든 틀에 세모꼴 또는 둥근 그물을 주머니처럼 붙여 있는 그물을 '산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漁具에 고기를 퍼 담을 때 부르는 소리로 가락이 <지어소리>나 <다리어소리> 보다 매우 긴 편이다.

이유는 고기를 퍼 담는데 따른 동작이 느낄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베끼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는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고기를 낚아낼때 부르는 소리로 어부 하나가 앞서 소리를 내면 나머지 어부들이 후렴을 합창하도록 되어 있다.) 최임규, 동해안 뱃소리, 강원민속학 7~8호 1990, PP.107~112.

이상 네종의 동해 뱃소리는 한결같이 동해를 배경으로 살아온 어민들의 애환을 그려내는 정감어린 진솔한 가락으로 동해를 떠나서는 한귀절 한가락도 읊을 수 없는 소리들이다.(예문 생략)

#### 다). 민속신앙으로서의 동해안 굿

고대신앙으로부터 현대신앙에 이르기 까지 그 맥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는 것이 굿이다. 따라서 굿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동해 별신굿이다. 동해 별신굿은 주로 동해안 지역일대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는 마을 단위의 굿으로 풍어제, 풍어굿, 골매기당제 등등으로 세분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동해안 거리굿이라 하여 굿거리에서 청배(請拜)한 神들을 따라온 원귀(冤鬼:일명 수비라 함)들을 위한 의식에 결들여 인간생활의 여러 면모를 다양하게 극적으로 연출(演出)하는 색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거리굿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현장에서 주로 조달되는데 주무(主巫)가 여자로 분장할 때는 관중들로부터 치마와 수건을 빌리고 어부로 등장할 때는 긴 장대를 샷대로 삼아 노 젓는 흉내를 내는데 향로는 어김없는 동해이다.

다음으로 골매기당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당제는 동해수호신과 마을 수호신을 봉안한 당집에서 열리는데 마을 주민들의 기원은 무탈한 어로활동 속에 풍요와 다산,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1년에 한번 또는 격년제로 올리며, 여기에 골매기 할매거리와 골매기할배거리가 연행(演行)된다.

이밖에 동해안 도리강관놀이, 동해안 중잡이 놀이, 동해안 범굿놀이 등 다양한 주술적 민속신앙 제례(祭禮)가 행해져 왔거나 행해지고 있다.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

소편, 한국민속대관 제6권, 同所刊, 1982, PP.524~525.

요컨대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굿 행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해를 외경하고 신성시 하는데서 비롯되어 행하여져 오는 삶의 연장선인 것이다.

### 라). 동해를 주제로 한 가사(歌詞)문학

#### \* 시조(時調)

시조는 우리 나라 유일의 정형시이다. 시조의 생성시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시조는 민요나 俗謠가 점차로 형식미를 갖추면서 이어져 왔다.) 조운제, 국문학개설, 탐구당, 1979, PP.111~123.

시조류취(時調類聚)라는 시조집에는 무려 1,405수의 시조를 실고 있는데) 최남선편 時調類聚, 동명사, 1928.

소재 또한 무제한이다. 이러한 시조야말로 인생을 가장 폭 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파고 든 문학의 한 장르(genre)이다. 그러니 민족의 생활사에 시대를 초월하여 깊숙이 자리 매김한 동해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조는 우리 국문학사에 있어 그 존재의 의의가 너무도 크며 우리 말로 이루어진 문학의 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문학에 대해 한국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시조 가운데 동해를 주제로 한 시조와 시가 허다하게 전해오는데 그 한 예로 조선시대의 박순우(朴淳愚)와 조황(趙桴)의 시조가 있어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철, 동해소재 고전문학의 몇 局面, 관동어문학 제9~10합집, 1999, P.14.

**동해 넓다 하더니** 이제 보니 과연 넓도다

노중연(魯仲連) 없으니 누가 다시 바랄것인가

아마도 강한조종(江漢朝宗)은 옛길인가 하노라 朴淳愚(1686-1759)

**동해 위 오봉산이 몽룡실(夢龍室)에 강신(降神)하여**

적공(積功)한 성학집요(聖學輯要) 서상연의(西廂演義) 이었구나

천년에 석담(石潭) 추월(秋月)이 선생 기상(先生 氣像)이구나 趙桴(연대미상)

\* 가사(歌辭)

가사(歌詞)는 우리 나라의 특이한 문학형태의 하나이다. 이러한 가사의 발생은 국문학이 운문학(韻文學)에서 산문학(散文學)으로 넘어가는 도상에 생긴 형태문학이다.) 같은 책, P.137.

가사문학 작품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는 정철(鄭澈)의 관동별곡(關東別曲)도 실은 동해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밖에 작자미상의 관동장유가(關東壯遊歌),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고려조의 안축(安軸)의 관동와주(關東瓦註)와 관동별곡(關東別曲) 등등이 있는가 하면 내방가사(內房歌辭)로 관 동해가(觀 東海歌)라 것이 있는데 이 작자 미상의 내방가사의 서두(序頭)와 권섭(權燮 167-1759)의 [동해로 내려 가서] 라는 가사의 서두를 여기에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오호유지 동해수는**

사해중에 으뜸이요

조선중의 대지로다

이 가사는 출가한 여인이 동해의 웅장한 경치를 바라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다. 作詩한 시기는 1800년대 초로 추정되고 있다.

權燮(167-1759)의 기행가사로는 백사장을 이어 밟아 동해로 내려 가서 백옥주 벌려 있는 곳 헤집고 앉으니

동서를 모르거니 遠近을 어이 알랴) 주 12)와 같은

책.PP. 16~17.

마). 한시(漢詩)

한시는 한글로 작시(作詩) 되기 이전의 한자(漢字)로 된 시(詩)를 말하는 것으로 五言과 七言의 絶句나 律詩가 보편적인데 그 수요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며 출판물도 또한 허다하다.)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8, P.191.

예컨대 동가선(東歌選),동인시화(東人詩話),대동시선(大東詩選),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명인들의 문집 등등은 한시로 지면(紙面)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 많은 시를 인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여기서는 주술적(呪術的)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유명한 동해송(東海頌)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는 것으로 동해를 소재 한시는 생략하고자 한다.동해송의 저자는 조선조 중기의 미수(眉 ) 허목(許穆)이다. 작시(作詩) 시기는 그의 나이 67세 때(1662년)로 동해의 거센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도가적(道家的) 신비감을 드러낸 작품으로 四言 1句 에 총 48句, 192字로 되어있다. 작성 목적은 작자가 이곳 수령으로 와 있으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해로 인해 실의에 빠진 백성들을 위무하고 불가항력적 재해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극복하도록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 동시에 거친 동해의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동해신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축문을 작성한 것이 곧 바로 東海頌이다.) 許穆, 記言 原集 下篇, 山川(卷之二十八) 東海頌 參照.

이 축문이 碑文으로 세워졌다. 이후로 동해의 풍랑과 해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전설적 신화를 낳으면서 백성들이 이 비문을 주술로 받아들여 거쳐마다 지니고 있으면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민간신앙화 되었고 술한 설화를 탄생시켜 왔다. 이 비는 지방 유형문화재 38호로 지정되어 동해안에 소재하고 있으며 오늘날 삼척시가 관리하고 있다.) 三陟郡編 三陟郡誌, 三陟郡刊, 1984, P.386.

이상과 같이 동해는 설화와 민속은 물론 한국문학의 여러 장르인 시조,가사,한시 등 다양한 형태로 투영되어 한국민의 정서 속에 자리매김 해 오고 있다.

이는 곧 바로 동해는 한국민의 정서형성에 필수불가결한 원류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 3. 史料 속의 東海

#### 가) 동해 관련 문헌기록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제1 시조 동명성왕편에 "일전에 천신이 나에게 내려와 이르기를 장차 나의 자손으로 이곳에 건국하려 하니 너희는 동해 바닷가로 옮겨 가라는) 삼국사기 권제13,고구려본기 제1 시조 동명성왕편.

기록이 보이는데 이 시기는 기원전 59년경이다.

삼국유사 권1 문호왕(文虎王) 법민조(法敏條)에는 대왕이 돌아감에 유언에 따라 동해 가운데 있는 큰 바위밑에 장사를 지냈다. 왕이 평소 지의법사(智義法師)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은 후에 호국용이 되어 불법을 숭상하고 나라를 수호하려고 한다 하니, 대사가 말하기를 용이란 한낱 짐승인데 어떻게 나라를 수호할 수 있으리요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생전에 세상영화를 번거롭게 여긴지 오래인데 죽어 용이 되어 나라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족하게 여긴다 하였다.) 삼국유사 권제 1 紀異 第二 文虎王 法敏條

또한 위와 같은 책의 만파식적조(萬波息笛條)에) 삼국유사 권제2 萬波息笛條. 전설상의 피리, 원명은 萬萬波息笛이라함

신문왕이 부왕인 문무대왕을 위하여 동해변에 감은사를 세웠다. 이 절 창건기에 보면 문무대왕이 외적의 침입을 막아 내고자 하여 절을 짓고자 하였으나 준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매 죽어 용이 되었다. 이에 그의 아들 신문왕이 왕위에 올라 공사를 마쳤는데 금당이라는 절간 섬돌 아래에 동쪽을 향해 구멍 하나를 뚫어 놓았다.

이는 용이 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절 이름이 감은사(感恩寺)인데) 감은사는 경북 월성군 陽北面 龍堂里에 있던 절로 682년 신문왕(2년)이 부왕을 위해 지은 절

문무대왕의 유골을 수장(水葬)한 곳을 대왕암이라 하고 용의 형상을 본 곳을 이견대(利見臺)라 적고 있다.

이처럼 동해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13회,삼국유사에 14회나 될 정도로 빈번하게 등장되며) 이상태, 역사문화상의 동해 표기에 대하여, 동해지명에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문

1995년 5월24일~26일 P.21

고려사에도 고려 태조 11년(기원 928년),고려 신종 즉위년(1197년), 인종 20년(1124년),명종 6년(1176년)조에도 계속해 이어져 오는데 때로는 국가를 지칭,때로는 재이(災異)에 따른 관심 때문에, 또는 제사대상지역으로 그 명칭은 빈번하게 등장해 왔다. 조선조에도 고려시기와 같은 정서로 등장되었는가 하면 특히 울릉도와 관련 수토(搜討)건과 관련해 빈번하게 언급되어 오고 있다.

#### 나).동해묘(東海廟) 관련 기록



고려사 지리지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에 동해신사(東海神祠)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 1에도 동해에 단묘(壇廟)를 양양에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남해는 나주, 서해는 풍천에, 강(江)의 단묘는 압록강은 의주, 두만강은 경원에 모셔져 있다고 하고) 세종실록 권 153 지리지 강원도 양양조, 당해지역별 항목에 따라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

이밖에 여지도서(輿地圖書)에도 동해를 지키고 다스리는 동해묘를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모셔졌다 하고, 서해를 지키고 다스리는 서해단(西海壇)은 황해도 풍천(豊川)에 모시는 등 동서남북에 해신(海神)과 강신(江神)을 모시는 사당(祠堂)을 설치하였다.

그 가운데 동해에는 묘(廟), 서해에는 단(壇)을, 남해는 신사(神祠)를 두었다 하고, 동해묘는 여타의 것보다 역사적 배경은 물론 그 위상이 높았으며 치제(致祭)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치러졌다.

그리고 이러한 동해묘의 외형적 형태는 동해 바닷물 위에 축대를 쌓고 세워졌으며 축대 밑으로는 바닷물이 차 있었는데 이는 마치 신라 문무대왕이 호국용왕화(護國神龍化)하여 감은사 법당에 들어와 신라를 지키게 했던 호국의 현장을 연상케 한 건축물이었다.

이러한 동해묘는 조선조 초기 사전(祀典)이 정비되면서 중사(中祀)로 정해졌는데 해마다 음력 2월과 8월에 임금이 친히 향과 축문을 보내 제사를 올릴 정도이었다. 조선조 제20대 경종 2년(1722년)과 제21대 영조 28년(1752년)에는 양양부사 채평윤과 이성억에 의해 각기 중수되었으며 제22대 정조 24년(1800년)에는 어사 권준의 상주와 강원도 관찰사 남공철의 주장으로 중수된 바 있다.

이렇듯 유서 깊은 동해묘(東海廟)는 제27대 순종 2년(1908년) 일본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철폐되고 말았다. ) 정영호, 청람사학(한국교원대학 발간), 창간호 1997, P.6.

그러나 광복이 이후 동해에 대한 민족적 정서감이 분출되어 오는 가운데 지난 1993년부터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정전(正殿)이 복원되고 정전 서북쪽에 두 토막이 나 있던 양양도호부 동해신묘비(東海神廟碑)는 동해에 대한 외경심과 신성감을 되살리면서 복원케 되었다.

#### 다) 東의 文字的 풀이

역사적으로나 민족정서적으로도 우리 민족은 동해라는 명칭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흔히 동해를 방위적 개념의 지명과 연계된 명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없지 않는데 이는 동해에 대한 민족적 정서감과 이의 밀착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라 하겠다.

즉 동해를 통한 호국사상의 결의나 열정 그리고 자연재해를 극복해 나가면서 불러 일으켰던 거족적인 관심과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동서남북과 같은 방위적 의미로서의 보편적 개념과 등치되는 명칭이 아닌 것이다.

東에 대한 문자적 풀이를 해 보더라도 東은 日과 木의 합성문자로 만물이 생동하기 시작할 때의 태양의 방향을 의미하는 동시에 해돋이를 상징하는 글자이다. 이밖에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의 한 축을 형성해 온 음양오행(陰陽五行)설에 따르면 동(東)은 목성(木星)으로 사절기 가운데 봄이며 5색 중에서는 푸를 청(靑)에 해당한다.

동은 또한 인간의 의식과 예속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양사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보면 진사대동(奏師隊東)이라 하여 주인이 동쪽에 좌정함이 절도 있는 예절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인류사에 가장 중요시하는 혼례식에 있어서도 오늘날 까지 변치 않고 전해지고 있는 동상례(東床禮) 또한 東의 숭앙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의식인 것이다.

이밖에 설화나 민간신앙의 주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신선(神仙)의 우두머리를 동왕공(東王公)이라 하고 그가 살고 있는 곳이 동해라 하는가 하면 동해용왕전설 등등 지속적인 생명력을 이어주고 있음은 동해를 단순한 방위적 개념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있는 한민족의 정서인 것이다.) 줄고, 한민족의 바다 동해(광복 50주년 기념 특집) 한술, 1995년 6월, PP.4~9.

東에 대한 정서감은 심정적인 차원을 떠나 문자화 되고 극도의 합리적 논거 하에 출판된 수 많은 우리 나라 전적(典籍)들에게도 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동국정운, 동국문헌비고, 동의보감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 4. 맺 는 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동해는 국가관도의 영역 이상으로 신성시 되어 온 바다이다.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은 내륙에서는 백두산을, 해양으로는 동해를 신성시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에 대한 민족적 애정은 그 어떤 여타 민족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각별하다. 이런 연유로 우리 나라 애국가 첫 머리에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가사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감성은 동해에 대한 일종의 외경심과 신앙심을 짙게 하여 이 같은 정서가 노래와 시, 동해신에 대한 제례의식으로까지 이어져 내려 오게 된 것이다.

요컨대 동해 명칭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민족적 정서를 이해하는데서 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본고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